12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u>스로</u>츠등아

One pck

업 앤 다운



영트

'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인정 "개인적 욕심에 그만…독단적 진행"

소문만 무성했던 가요계 음원 사재기가 일부 사실임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측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1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영탁이 무명시절이던 2019년 10월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3000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음원 스트리밍, 이른바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다. 지난 수년 동안 음원 사재기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요계의 충격은 더욱 크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 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 다"면서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 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제 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가수(영탁)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에 관여 할 수 없었고 정보도 공유 받지 못했다"며 "오랜 무명 생 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 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 과했다.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등 OTT드라마 세계를 휩쓰는데…

잘 나가는 OTT 드라마…맥 못추는 안방극장

전지현의 '지리산' 상승세 기대이하 이영애의 '구경이' 시청률 2.6% 그처 배우도 OTT 작품부터 찾는 분위기 "방송사 제작 한계…경쟁 쉽지 않을듯"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는 '난리'인데…."

최근 방송 중인 한 드라마 관계자의 넋두리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마 이네임' 등 OTT 오리지널 시리즈가 세 계적인 열풍을 모은 반면 기존 방송사들 은 이렇다 할 '대박'을 내지 못해 방송가 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욱이 4일 애플TV+, 12일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 벌 OTT들이 잇따라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 방송사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톱스타 기용도 '무용지물'

전도연, 고현정, 이영애 등 톱스타들을 내세운 드라마가 연이어 시청률 참패를 맛보고 있다. 10월24일 종영한 전도연 주연의 JTBC '인간실격'은 2.4%, 고현정과 신현빈이 나선 '너를 닮은 사람'은 2.2%를 기록했다. 이영애의 코믹 도전이 돋보이는 '구경이'도 10월30일 2.6%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전지현이 주연하는 tvN '지리산'은 10월31일 4회분까지 10.7%(닐슨코리



배우 전지현이 주연으로 나선 tvN 드라마 '지리산'이 10%대의 시청률을 넘겼지만, 올해 최고 흥행 드라마가 될 것이란 기대에 비해서는 연출 등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l tvN

아)의 낮지 않은 시청률을 거뒀지만, 상 승 추이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지리산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이 흥미롭다며 시청률 반등을 예측하는 시청자도 많지만, 과도한 간접 광고(PPL) 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예측하는 시청자도 많지만, 과도한 간접 도 동시 공개해 '전 세계 많이 본 TV쇼/ 광고(PPL) 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드라마' 최고 7위까지 올랐던 tvN '갯마이하늬의 코믹 연기를 내세운 SBS 을 차차차'는 10월17일 종영 직후 주인 '원더우먼'은 16.9%까지 시청률을 끌어 공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커져 열기를

오래 끌지 못했다.

● "배우들도 OTT 작품 선호하는 분위기"

방송가의 이목은 한효주와 송혜교에 게 쏠린다. 이들이 5일 tvN '해피니스', 12일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각각 내놓으면서 방송가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등이 여전히 강세이고, 애플TV+ 'Dr.브레인'도 4일 공개되는 등 OTT 공세가 만만치 않다.

방송가의 정체된 분위기가 걷히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4일 "기존 방송 사 드라마가 시청자를 의식해 스스로 일 정한 틀에 가두는 측면도 있다"면서 "시 류를 발 빠르게 반영하는 등 변화의 움직 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지만"OTT 와 제작환경 자체가 달라 경쟁이 어렵다" 는 점에서 방송사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작비 전액을 투 자하는 OTT와 달리 방송사는 제작비 조 달의 한계상 PPL(간접광고)에서 자유로 울 수 없고, 표현 수위에 대한 규제로 소 재 선택에도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배우 들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호하는 흐름이다"면서 "캐스팅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개봉 예정작 4편…한국영화 흥행 신호탄 쏠까?

느와르 영화 '강릉' 10일 선보여 17일엔 류승룡의 '장르만 로맨스' 24일엔 '유체이탈자' '연애 빠진…'

감염병 탓에 움츠러들었던 한국영화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일부 대형기대작이 명절과 여름시즌에만 제한적으로 선보여온 상황에서 상업성 짙은 작품들이 이달 잇따라 개봉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11월이 한국영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본격 흥행을 노리는 개봉작은 네 편이다. 유오성·장혁이 주연해 10일 선보이는 '강릉'(감독 윤영빈·제작 아센디오)을 시



영화 '강릉'

작으로, 17일 배우 조은지의 감독 데뷔작인 류승룡 주연 '장르만 로맨스'(제작 비리프), 24일 전종서와 손석구의 '연애 빠진로맨스'(감독 정가영·제작 CJ ENM, 트웰브져니)와 윤계상·박용우의 '유체이탈자'(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사람엔터테인먼트)가 극장에 나선다.

다채로운 출연진과 함께 장르도 다양해

서 관객의 선택폭을 넓힌다. '강릉'은 유오성이 2001년 '친구'와 2013년 속편 '친구2'이후 다시 선택한 느와르 영화이다. '장르만 로맨스'와 '연애 빠진 로맨스'는 제목이말해주듯, 로맨스를 바탕으로 개성 강한인물들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다. '유체이탈자'는 미스터리 액션물을 표방한다.

올렸지만, 화제성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

온다. 3일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

퍼레이션의 드라마 화제성 순위에서

4위에 머물렀다. 방영 중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세로 극장 관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한국영화가 극장 개봉을 미뤘다. 일부 작품은 넷플릭스 등 OT 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직행했다. 대규모 제작비의 몇몇 기대작만이성수기에 선전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영화 실질개봉

편수는 2019년 199편보다 17.1%가 줄어든 165편이었다. 올해에는 1~9월 153편으로 지난해와 엇비슷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 개봉작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이달부터 많은 관객이 본격적으로 극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3일 개봉한 '이터널스' 가 3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불러 모은 것도 호재다. '유체이탈자'의 윤재근 감독은 4일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재미를 많이 잊은 것 같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다. 극장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니 큰 스크린과 완벽한 사운드로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설까지이어질 성수기를 시작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길의 출발점에 11월 개봉작들이 서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